

임부 남편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정혜경* · 김경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유수유는 영양학적, 면역학적, 정서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전염병 및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며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적이고 위생적이어서 모유수유아의 경우 인공영양아에 비해 이병률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mond, 1981; Baer, 1981; Fallot & Oski, 1980; Kenny, Boesman & Michaels, 1967; Klaus & Kennell, 1979).

이러한 모유수유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실제로 1960년대에 95%였던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에 94%, 1980년대에는 68.9%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되어 마침내 1990년대에는 모유수유율이 35.4%까지 저하되었다(가족계획연구원, 1977; 이, 199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모유수유율의 감소는 다수의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제도의 구조적 변화와 임부와 영아의 신체적·심리적 저해요소,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부족과 남편이나 가족의 지지결여,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를 격리시키는 병원제도 및 여성의 사회

활동증가 등의 환경적 저해요소이다(김, 1990; 오, 박, 임, 1994; 이, 1995; Ebrahim, 1979).

이처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많은 요인 가운데 모유수유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유를 먹이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과 모유수유를 시도하거나 지속하는데 있어서 지지자의 도움과 격려이다(이, 1992).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유부에 있어서 모유수유권장자 중 남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시 남편의 참여는 물론 남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모유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어려서부터 모유에 대해 올바른 지식 및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송, 1989; Sweeney, 1987). 그러나 지금까지 모유수유에 대하여 여성이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지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특히 모유수유에 대한 의사 결정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임부 남편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정도 파악과 그들이 산전 관리 및 수유기간 중 교육을 통한 태도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바 본 연구자는 인간의 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Q-방법론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유수유에 대한 임부 남편들의 태도 유형을 분석, 명명한다.
- 2) 임부 남편의 모유수유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 3) 모유수유를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다.

II. 문헌 고찰

1.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여성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여러가지 사회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며 현 사회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감소되어 역할 모델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자연스런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는 여성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결여나 출산 후에 따르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조건 때문에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박과 권, 1991 ; 이, 1992 ; 정과 이, 1983).

산모가 출산 후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행위는 산후에 즉각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임신중에 모유수유에 대한 지지적인 교육을 받는 기회를 통하여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초래되었을 때 비로소 모유수유를 하려는 태도로 나타나며, 과거에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그 다음 아기에게도 모유수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영아 수유 형태란 한번 정해지면 다음 수유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송, 1989 ; 조, 1990 ; Jones & Balsey, 1977).

선행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유대감과 정서적인 만족감, 초유의 면역성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인공수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이상적인 영양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과 그들의 실제 모유수유 실천율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임부의 교육 정도가 높고 직업이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인공수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1989 ; 이, 1984 ; 정, 1993 ; 홍, 1982).

또한 모유수유 모습을 볼 기회가 많았거나 자기 자신

이 것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아는 것은 향후 모유수유의 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Eastham, Smith, Poole & Neligam, 1976).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향후 영아 영양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를 하려는 이유로는 '모유수유는 애정 결합을 위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영양가가 많고 경제적이다',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등의 이유도 제시되었다. 반면 인공수유를 하려는 이유에는 '아기를 튼튼하게 해준다'가 44.4%였으며 '엄마의 몸매 유지를 위해서', '모유보다 영양가가 많다', '엄마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남 앞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부끄럽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요즘은 우유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모유를 줄 필요가 없고, 모유 영양이 아기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엄마로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반응도 보여 최근 모유수유에 대한 변화된 사고 방식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김, 1979 ; 신, 1985 ; 정, 1993 ; Eastham et al, 1976).

2. 모유수유에 대한 남편의 지지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산부나 그 가족들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또한 모유수유를 시도하거나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지지자의 도움과 격려가 필수적인 것이다(송, 1989 ; Sweeney, 1987). 모성의 모유수유 실천은 외적 요인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서 임부의 모유수유의 시도와 지속은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지활동이 모유수유 실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McFarland, 1989).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부모가 될 사람들을 위한 산전교실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므로써 출산 과정 및 산육기, 그리고 모유수유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와 새로 출생한 아기, 다른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하고 지지적이고 도움을 주는 남편은 모유수유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가족의 조화와 일치감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모유수유에 대한 남편의 의사와 격려는 수유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유수유가 아내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아내를 가

장 효과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정, 엄, 남, 이, 김, 1982 ; Sweeney, 1987).

이러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는 분유를 먹이기로 결정한 산모보다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한 산모에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성의 수유능력은 그녀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 199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남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실제 모유수유 실천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남편은 이 과정에 있어서 모유수유를 보호해 주고, 촉진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조력자요, 동반자이다(김, 1993 ; Henderson, 1978 ; Brown, 1985 ; Janice & Margaret, 1986 ; Preston, 1991).

III. 연구 방법

1. Q-방법론의 적용

본 연구는 1930년대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된 조사 연구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나 태도, 신념등과 같은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은 자아 이론과 함께 *concourse*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는데 여기서 *concourse*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느낌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 진술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 1990).

이 방법론은 *concourse*의 원리속에서 Q-sorting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대상자 스스로의 주관성을 총체적 구조물 안으로 투사하게 함으로써 질적 자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각 개인이 어떠한 태도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개인 의견이나 태도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밝힘과 아울러 개인내의 의미성을 탐구함으로써 특정 이유나 주제의 성격을 밝혀주는 분석 방법이다(김, 1990 ; Dennis, 1986).

2. Q-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Q-population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전문서적이나 선행 논문, 잡지, 기타 홍보물 등의 자료와 일반인, 전문인, 임부, 임부 남편들을 대상으로 모유에 대한 지식과 모유 및 인공수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이양육시 수유방법 선택의 중요성 등을 심층면담을 통해

<표 1>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내용

Q-진술문 내용

1.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2. 모유는 인공분유보다 영양가가 높다.
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준다.
4.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
5.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
6.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된다.
7. 모유수유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다.
8. 모유수유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희생이다.
9.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
10. 모유를 먹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11. 모유는 소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되어 좋다.
12. 모유는 경제적으로 돈이 절약되어 좋다.
13. 모유수유는 일정기간동안 자연적인 피임효과가 있어 좋다.
14. 모유수유는 임신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
15. 모유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먹일 수 있어 편리하다.
16. 요즘 주위의 아기엄마들은 가능하면 모유를 먹이려고 한다.
17.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
18.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19. 모유대신 우유를 먹는 아기를 보면 가엽게 느껴진다.
20. 내 아내가 다른 사람앞에서 모유먹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싫다.
21. 우유도 모유성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22. 모유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23.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모유수유는 불편하다.
24. 생후 1년 이내라도 모유만으로는 영양이 불충분하다.
25. 모유수유는 산모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26. 모유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28. 요즘은 대부분이 우유를 먹여 키우는 것 같다.
29. 직장 때문에 어차피 우유를 먹게 될 경우는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30. 모유에 대한 홍보를 듣고 난 후 모유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31. 모유를 먹이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
32. 사회의 문제아를 줄이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여야 한다.
33. 모유를 먹이는 것 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34. 모유수유를 하는 직장여성에게는 모유수유 시간과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35. 내 아내가 모유먹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
36. 내 아이는 반드시 모유로 키우고 싶다.
37.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모유는 먹여야 한다.
38. 모유든 우유든 아내의 의견대로 할 것이다.

조사하였으며 총 112개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들을 내용의 중복 여부 및 표현의 명확성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38개의 Q-표본이 추출되었다(표 1 참조).

3. P-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이 개인내에서의 의미성이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질적조사라는 점에서 표본의 수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P-표본의 수가 커지면 오히려 Q-방법론의 전제인 소표본 이론(Small-sampling doctrine)에 어긋나며 통계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김홍규, 1990), P-표본의 특성은 연구 목적이나 연구 문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7년 6월 부터 10월 사이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내 일개 대학 부속병원과 2개 개인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임부와 함께 내원한 임부 남편 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Q-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되는 40±20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이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으로 표집된 21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coding)하여 컴퓨터에 data file로 입력시켰다. 한편 자료분석은 PC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은 주인자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2> 카드 배열 방법

	-4	-3	-2	-1	0	+1	+2	+3	+4
적극반대									적극찬성
카드수	2장	3장	4장	6장	8장	6장	4장	3장	2장
점수	1	2	3	4	5	6	7	8	9

<표 5>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연구 대상자 번호	학력	종교	성장기 거주지역	배우자			인자가중치
					직업	분만력	모유수유 경험	
1	VAR 10	고졸	기독교	농어촌	없음	경산	있음	1.9705
2	VAR 15	대졸	없음	소도시	없음	경산	있음	1.1410
3	VAR 7	고졸	기독교	농어촌	없음	경산	있음	1.1397
4	VAR 9	대졸	기독교	소도시	없음	경산	있음	1.0603
5	VAR 5	대졸	기독교	소도시	없음	경산	있음	1.0210
6	VAR 21	대졸	기독교	대도시	있음	경산	있음	.7681

IV. 연구 결과

1. Q-유형의 형성

Q-요인 분석(Q-factor analysis) 결과로 얻어진 3개의 유형은 모유수유에 대하여 같은 의견이나 생각, 태도를 가진 임부의 남편들로 묶어지기 때문에 각 유형 하나 하나는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한다. 분석 결과 나타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2.5%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별 설명력을 보면 유형 1은 40.2%, 유형 2는 9%, 유형 3은 5.3%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의 백분율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아이겐치	8.8449	1.5258	1.1672
변량의 %	.4020	.0694	.0531
누적 빈도	.4020	.4714	.5245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유형 1과 유형 2의 상관관계는 .587이며, 유형 1과 유형 3은 .700이고, 유형 2와 유형 3의 상관관계는 .673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형별 상관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000	.587	.700
유형 2	.587	1.000	.673
유형 3	.700	.673	1.000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임부 남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factor weight)는 표 5와 같다. 여기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 있어서 전형적인 사람(prototype)이다.

〈표 5〉 계속

순위	연구 대상자 번호	학력	종교	성장기 거주지역	배우자			인자 가중치
					직업	분만력	모유수유 경험	
1	VAR 19	고졸	없음	대도시	없음	경산	있음	1.3019
2	VAR 3	고졸	기독교	농어촌	없음	초산	없음	.8797
3	VAR 14	대졸	없음	소도시	있음	경산	없음	.8170
4	VAR 18	고졸	기독교	대도시	없음	초산	없음	.7874
5	VAR 4	대졸	기독교	대도시	있음	초산	없음	.4814
6	VAR 12	고졸	불교	소도시	없음	경산	있음	.3948
1	VAR 6	중졸	없음	농어촌	없음	경산	있음	1.1846
2	VAR 11	고졸	불교	농어촌	있음	경산	없음	1.1658
3	VAR 8	대재	기독교	대도시	학생	초산	없음	1.0594
4	VAR 2	고졸	불교	대도시	없음	경산	없음	.9696
5	VAR 16	대졸	기독교	소도시	있음	경산	없음	.9337
6	VAR 20	대졸	천주교	농어촌	있음	경산	있음	.8492
7	VAR 13	대졸	기독교	대도시	없음	초산	없음	.6058
8	VAR 17	고졸	없음	소도시	있음	초산	없음	.5819
9	VAR 1	고졸	없음	농어촌	없음	초산	없음	.5776

2 유형별 분석

1) 제1 유형 (모성 도리 주장형)

유형 1은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5명의 인자가중치가 +1.00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특성은 배우자가 모두 경산모이며 이들 모두 모유수유한 경험이 있었다. 또 종교는 5명이 기독교이고 1명은 종교가 없으며, 성장기 거주지역은 농어촌이 2명, 소도시가 3명, 대도시가 1명이었다. 유형 1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을 보면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표준점수 +2.04),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준다’(+2.03), ‘모유수유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다’(+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2.16), ‘직장 때문에 어차피 우유를 먹게 될 경우는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1.72),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1.52) 등의 순이었다(표 6 참조). 이런 점에서 유형 1에 속한 일부 남편들은 모유수유는 여성의 역할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당연한 도리이며 자식에 대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표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형 1이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도가 높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면 ‘모유수유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다’(차이 +1.503)이며 그 다음으로 ‘모유는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이다’(+1.290),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모유는 반드시 먹여야 한다’(+1.023) 순이었다.

〈표 6〉 유형 1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2.04
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준다	2.03
7. 모유수유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다	1.60
2. 모유는 인공분유보다 영양가가 높다	1.52
22. 모유는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1.50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1.15
26. 모유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1.21
9.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	-1.52
29. 직장 때문에 어차피 우유를 먹게 될 경우는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1.72
33.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2.16

반면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항목은 ‘모유든 우유든 아내의 의견대로 할 것이다’(차이 -1.427),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1.342), ‘요즘은 대부분이 우유를 먹여 키우는 것 같다’(-1.332) 순으로 제시되었다.

〈표 7〉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7. 모유수유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다.	1.600	.097	1.503
22. 모유는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1.495	.205	1.290
37.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모유는 먹어야 한다.	.362	-.661	1.023
1.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2.040	1.100	.941
29. 직장 때문에 어차피 우유를 먹게 될 경우는 처음부터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1.722	-.618	-1.104
28. 요즘은 대부분이 우유를 먹여 키우는 것 같다.	-.939	.393	-1.332
5.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	.951	2.292	-1.342
38. 모유든 우유든 아내의 의견대로 할 것이다.	-1.144	.283	-1.427

이같은 결과에서 유형 1에 속한 임부 남편들은 모유수유의 많은 장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엄마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엄마의 희생이나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문제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성을 하였으며 수유방법 결정시에 남편의 의견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유형 1의 특징은 이 유형에 속한 임부 남편들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해진다. 유형 1에 속한 사람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VAR 10은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모유수유는 아이를 낳은 엄마라면 당연한 것이고, 그 모습은 모성애가 느껴지고 아름답다”라고 하였으며, VAR 15는 “예로부터 모유수유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내리사랑이었고 사회가 변해도 아기에게만은 모유를 먹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유를 먹이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은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는 일인데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유형 1의 종합적인 특성과 그들의 견해를 고려해 볼 때 유형 1은 모성 도리 주장형이라 할 수 있겠다.

2) 제2유형 (정서적 가치 지향형)

유형 2는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분만력이 3명은 초산이고 3명은 경산이었으며 이들 중 모유수유 경험자는 2명이었다. 그리고 성장기 거주지역은 농어촌이 1명, 소도시가 2명, 대도시가 3명이었다.

유형 2가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을 보면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표준점수 +2.45),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1.82),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된다’(+1.42)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2.50), ‘모유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1.96),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1.46) 등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형 2도 유형 1과 마찬가지로 모유수유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본능적이거나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보다는 모유의 장점을 비롯하여 엄마와 아이가 정서적인 면에서 얻게 되는 장점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 8〉 유형 2가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5.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	2.45
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준다.	1.82
6.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된다.	1.42
2. 모유는 인공분유보다 영양가가 높다.	1.42
25. 모유수유는 산모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97
19. 모유대신 우유를 먹는 아기를 보면 가엽게 느껴진다.	-1.13
14. 모유수유는 임신전 상태로의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	-1.13
20. 내 아내가 다른 사람앞에서 모유먹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싫다.	-1.26
33. 모유를 먹이는 것 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1.46
26. 모유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	-1.96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2.50

또한 이들의 특성은 <표 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형 2가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을 보면 ‘모유수유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희생이다’(차이 +2.010)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유도 모유성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1.074)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 동의를 높게 보인 항목은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

리이다’(-1.551), ‘모유수유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다’(-1.429), ‘아기에게 젖 먹이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1.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유수유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인공우유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의 적극적인 지지형인 유형 1보다는 한층 약화된 견해라 보여진다.

<표 9> 유형 2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8. 모유수유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희생이다.	.885	-1.125	2.010
21. 우유도 모유성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006	-1.068	1.074
25. 모유수유는 산모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968	.018	.951
5.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	2.453	1.541	.912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2.504	-1.356	-1.149
18.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065	1.102	-1.167
7. 모유수유는 여성 최고의 특권이다.	-.355	1.075	-1.429
1.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380	1.930	-1.551

유형 2의 특징은 이 유형에 속한 임부 남편들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해진다. 유형 2에 속한 사람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VAR 19는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엄마라면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였으며 VAR 20은 “분유보다는 모유가 아기의 건강에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답하였다. 또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이유로는 “산모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므로 모유를 먹인다고 해서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모유수유로 피임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모유가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유형 2는 모유가 어머니나 아기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고려하였으며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준하여 모유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유형 2는 정서적 가치 지향형이라 할 수 있겠다.

3) 제3유형 (상황적 선택형)

유형 3에 속한 임부 남편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우자가 경산인 경우가 5명이고 이중 모유수유를 했

던 경우는 2명이었다. 성장기 거주지역은 농어촌이 4명, 소도시가 2명, 대도시가 3명이다. 또한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5명으로 제시되었다.

유형 3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표준점수 +2.13)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1.82),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1.61), ‘모유는 소화 잘 된다’(+1.64)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1.56), ‘모유수유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희생이다’(-1.42), ‘모유를 먹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1.41) 등으로 제시되었다(표 10). 즉 유형 3은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아기와의 애착정도가 깊어지고 엄마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유가 가진 많은 장점들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의 질적인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모유수유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형 3에 속한 배우자 중 직업을 갖은 경우가 5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0〉 유형 3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5. 인공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엄마와의 애착정도가 더 깊다.	2.13
1.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1.82
3. 모유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준다.	1.81
4.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	1.64
2. 모유는 인공분유보다 영양가가 높다.	1.29
23.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모유수유는 불편하다.	1.16
17.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	-1.16
9. 모유를 먹이면 유방이 미워진다.	-1.16
10. 모유를 먹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1.41
8. 모유수유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희생이다.	-1.42
27. 젖 먹이는 모습을 보면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1.56

또한 이들의 특성은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항목들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항목을 보면 ‘모유든 우유든 아내의 의견대로 할 것이다’(차이 +1.203),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1.186) 등이며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를 높게 한 항목은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1.321), ‘모유수유는 산모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941) 등의 순이었다. 이와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형 3은 모유의 질적인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엄마의 희생이거나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아니며 모유수유에 대한 의사결정은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38. 모유든 우유든 아내의 의견대로 할 것이다.	.610	-.593	1.203
4. 모유는 소화가 잘 된다.	1.643	.457	1.186
19. 모유대신 우유를 먹는 아기를 보면 가엽게 느껴진다.	.144	-.717	.861
33. 모유를 먹이는 것 보다 우유를 먹이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	-1.077	-1.811	.734
22. 모유는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024	.941	-.917
25. 모유수유는 산모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293	.648	-.941
17. 유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다.	-1.161	.086	-1.247
8. 모유수유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희생이다.	-1.418	.027	-1.445

유형 3의 특성은 이 유형에 속한 임부 남편들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해진다. 유형 3에서 인자가 중치가 높은 VAR 6과 VAR 11은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아기에게 대한 애정이 깊어진다”, “가능하면 모유를 먹여야 되며 모유를 먹이면 아이가 더 사랑을 느낄 것이다. 아무리 우유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모유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유를 먹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책감을 갖을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유는 “자신의 미적인 면을 생각해서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요즘은 많은 여성 등이 직장을 다녀서인지 우유를 먹이는 것 같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모유먹일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직업여성은 모유먹이기가 힘든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유형 3은 모유의 질적

인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모유수유가 어머니로서의 희생이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 또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대부분 인공우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할 경우 직장여건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유형 3은 배우자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5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 모유수유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였거나 예견해 봄으로써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성과 그들의 견해를 고려해 볼 때 유형 3은 상황적 선택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V. 논 의

제1 유형(모성 도리 주장형)은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엄마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여

기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성본능에 기인한 행동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태도는 흔히 현대사회에서 우선되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나 합리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고 전통적 방법을 고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A.A.P, 1978). 또한 유형 1의 인구학적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우자가 모두 경산이었으며 더욱이 이들 모두 모유수유 경험자였던 것으로 보아 모유를 최선의 영아 영양법으로 인식하여 다음 수유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과거에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임부는 그 다음 아기에게도 모유수유 할 비율이 높았다는 Jones & Balsey(197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제2유형(정서적 가치 지향형)도 모성 도리 주장형과 마찬가지로 모유수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가 도리적인 것이나 전통적인 방법의 답습이라기 보다는 모유수유의 장점, 특히 모유수유시 아기나 임부가 얻게되는 정서적인 잇점과 임부의 성취감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상황적 선택형)은 모유수유에 대하여 본능적인 모성 행위로서의 인식이나 질적인 우수성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모유와 인공수유의 선택시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모유가 아기에게나 엄마에게 좋은 영양법이기는 하나 절대적이라는 인식정도는 낮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역할 변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 있었던 비율이 높았고 모유수유 실천정도가 낮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직업이 있는 여성일수록 모유수유율이 낮았다는 송(1989)의 보고와도 유사하다.

이들 각 유형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는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이들 세 유형의 상관 관계가 높았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이같은 결과는 모유수유 행위는 모성 본능에 기인된 행동의 결과이며 옛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임과 아울러 분만 후 모유 분비는 생리적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의 분유의 과대 선전이나 의료인들의 모유 경시 풍조, 여성들의 역할 변화, 모유수유에 대한 지지자의 격려 부족등은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모유수유율을 감소시키며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남편의 태도가 모유수유 실천에는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최, 이, 윤, 심 및 최(1996)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임부 남편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높은 인식률이 실제 모유수유 실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런 학습의 기회 제공, 산전 교실을 통한 모유수유 홍보 전략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편들의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전략 마련은 모유수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모유수유를 시도하거나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지지자들의 역할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점에서 임부 남편의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모유수유에 대한 임부 남편들의 태도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중재 개발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고자 Q-방법론을 이용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3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제1유형(모성 도리 주장형)은 모유수유는 아기나 엄마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엄마의 도리로는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유수유 행위를 여성의 역할 중 가장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엄마의 희생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2유형(정서적 가치 지향형)은 모유수유가 아기나 엄마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잇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장점등을 고려하여 모유수유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능적이거나 도리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라 생각되어 진다.

제3유형(상황적 선택형)은 모유에 대한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질적인 우수성과 엄마된 도리로써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유수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배우자, 즉 아기 엄마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모유수유는 옛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이자 모성 본능에 기인되어 나타난 행동 양상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임부 남편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점과 세 유

형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던 점 등 세가지 유형에 속한 임부 남편들의 태도에는 유사성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유형에서 보여준 모유수유에 대한 임부 남편들의 태도는 모유 선택 동기와 인식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므로써 이는 각 유형에 속한 임부 남편들의 태도 특성에 따라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교육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유수유에 대한 부부의 태도 일치 여부를 규명하는 연구와 각 유형에 속한 임부와 임부 남편에게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한 후 모유수유 실천 정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가족계획연구원 (1977). 1974년 한국 출산력 조사.
 김성택 (1979). 우리나라 영유아의 영양법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소아과, 22(5), 1-13.
 김승조 (1990). 모유수유의 장애 요인 및 대책. 모유 권장 대책 토론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혜숙 (1993). 모유의 신비. 에드텍.
 김홍규 (1990). Q-방법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의교재.
 박옥희, 권인수 (1991). 산후 경과별 모유수유 실태. 모자간호학회지, 1(1).
 송규희 (1989). 서울 시내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선숙 (1985). 영아 영양에 대한 태도와 태도형성에 관련된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7.
 이경혜 (1992). 국내 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이미자 (1995).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실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창간호, 108-119.
 이민숙 (1984). 여고생의 모유수유와 인공수유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귀영, 이 근 (1983). 모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 26(6), 527-531.

정우식, 엄홍인, 남병도, 이정희, 김규택 (1982). 인공수유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관찰. 소아과, 25(10), 1046-1052.
 조미영 (1990).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모유권장대책토론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정혜경 (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최상순, 이은희, 윤경희, 심복경, 최남희 (1996).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22-234.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 (1982). 1982년 전국 가족 보건 실태 조사.
 홍대식 (1982). 내원 환아 및 육아 상담아의 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 소아과, 25(4), 27-34.
 A. A. P. (1978). Breast-feeding. Pediatrics, 62(4), 591-602.
 Armond, S. G. (1981). Human Milk. Leukocytes and Immunity. Pediatrics, 90, 167-168.
 Baer, E. C. (1981). Promoting Breast Feeding : A National responsibility. Studies in F. P., 12(4), 198-199.
 Brown, B. D. (1985). Breast-milk Jaundice. JOG NN, May/June, 220-223.
 Dennis, K. E. (1986). Q Methodology :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6-17.
 Eastham, E., Smith, D. & Poole, D. and Neligam, G. (1976). Futher Decline of Breast-feeding. Britis Medical Journal, 1, 305.
 Ebrahim, G. J. (1979). Breast Feeding-the Biological Option. MacMillan Co. 74-84.
 Fallot, M. E. & Oski, F. A. (1980). Breast feeding reduces incidence of hospital admission for infection in infants. Pediatrics, 65, 1121-1124.
 Henderson, K. J. (1978). Helping Nursing Mothers Maintain Lactation while Separated from Their Infants. MCN, Nov/Dec, 352-356.
 Janice, H. M., Margaret, J. M. (1986). Minimal Breast Feeding. JOGNN, July/Aug, 333-338.
 Jones, R. A. K. & Balsey, E. M. (1977). Breast-feeding in an Inner London Bough : A Study of Cultural Factors. Soc. Sci. Med. 11, 175.

- Kenny, J. F., Boesman, M. I. and Michaels, R. H. (1967). Bacterial and Viral Coproantibodies in Breast-feed Infants. Pediatrics, 39, 202.
- Klaus, M. H., Kennell, J. H. (1979). Care of the Parents & Care of the High risk Neonate. Philadelphia, W.B. : Saunders Co. 147-172.
- McFarland G. K. & Mcfarland E. A. (1989). Nursing Diagnosis & Intervention, The C.V.Mosby Co, 126-138.
- Preston, B. L. (1991). Lactation Consultation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MCN, 16, May/June, 167.
- Sweeney, M. A. (1987). The health belief model as an explanation for breast feeding practices in a Hispanic population. ANS, 9(4), 35-50.

– Abstract –

Key concept : Pregnant women's husbands,
Breast Feeding

Attitudes of Pregnant women's husbands to Breast Feeding

Chung, Hae Kyung · Kim, Kyung Hee***

By using Q-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pregnant women's husbands toward breastfeeding. Also, the research provides basic data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for recommending breastfeeding.

A total of 112 items for the Q-population were collected from related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the general public, specialists,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Finally, 38 statements were selected. Twenty one husbands of pregnant women classified these statements on each card on a 1 to 9 point scale (forced normal distribution) and wrote the reasons for both the most supported and the most resisted statements.

The materials collected were analyzed by using pc QUANL program. The analysis drew down following fact that even though the attitudes of the husbands of pregnant were very similar, they could be classified 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motivation and recognition the degree of choosing breastfeeding. Type 1 is the mother's duty supporter, who insists that breastfeeding is completely natural and the proper duty of the mother. Type 2 is the emotional value supporter, who thinks that breastfeeding emotionally affects both the baby and the mother in a positive way. Type 3 is the conditional choice supporter, who chooses the most proper suckling way of feeding according to given conditions.

*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